

# Landscape Review

Vol.15 조경정보

Contents

주민참여

02 '주민참여'라는 접두어

06 '조경과 시민참여', 가능성의 모색

09 게릴라 가드닝을 아시나요?



# ‘주민참여’ 라는 접두어

김연금 조경작업소 올, 커뮤니티디자인 센터 geumii@empas.com

## 접두어로서의 주민참여

근래 많은 단어 앞에 ‘주민’, ‘주민참여’ 라는 접두어가 붙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 ‘주민참여’ 라는 단어를 넣어 뉴스를 검색하면 접두어로서의 주민과 주민참여의 화려한 활용을 볼 수 있다.

- 광주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10년 기념 행사
- 인천 남구, “하고 싶은 이야기... ‘주민발언대서’ 하세요”
- 제주시 동부보건소 주민자율방역반 발대
-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민 공람 실시
- 주민참여 ‘우리동네 그린맵’ 환경실천파트너 10곳 선정
- 중랑구, 마을공동체 주민양성 위한 특별강연 개최
- ‘원주 와일드푸드 축제’ 공모전 주민참여 고조

- 서초구, 주민과 소통 위해 ‘공동주택 담당관제’ 도입
- 광주 광산구, 주민참여업무 활성화사업 추진
- 도봉구, 주민참여형 교육정책 연구 공모 (2012년 5월 23일 네이버 검색 결과 중)

주민들이 바빠졌다. 예산 집행에도 참여해야 하고, 방역도 해야 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도 관심을 가

미래상 설정

가상의 주민공을 만들고 공원 이용을 상상해보기

활동에 필요한 시설물을 검토하고 대상지에 배치해보기

토론 모습

자신들의 계획 내용을 설명하는 주민들

기념 사진

현재 방치되어 있는 부천시의 여월 정수장을 공원으로 임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총 8회의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위 사진은 두 번째 워크숍의 모습으로 행정, 전문가와 주민들은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함께 비전을 정해보고 도입시설을 검토했다.(전문가 MP 단: 성종상 교수(총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오우재건축사사무소+조경작업소 올+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



2011년 전남 고흥군 구룡마을 경관계획시 마을 내 경관 자원 찾기

저야 하고, 정책 교육도 받아야 한다. SNS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행정이, 정치인들의 호의에도 응대해주어야 한다. '진작부터 그랬어야 했어' 라고 해야 하는지, '웬 갑작스런 호들갑이야', '얼마나 가겠어' 라고 폄하해야 하는지. 평가는 쉽지 않다. 어찌되었건 블랙박스 같은 정책수립과 실행의 과정을 공개하고, 참여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조정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 근래 행정의 여러 사업에서 '주민참여'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에 이루어졌던 서울시의 상상어린이 공원 사업은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의무적으로 주민을 참여시키도록 했는데 어린이들의 요구를 듣는 시간과 대상지 현장에서의 주민 설명회를 최소한 1회씩 갖도록 했다. 2010년에 시작된 상상어린이공원의 변형인 어울림 공원은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어린이 공원을 탐색 하도록 하고 있고 현상설계 당시 배포되었던 지침서에는 '주민협의체'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수장이 된 이후에는 더욱 더 빈번하게 이 용어를 만날 수 있다.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동네숲 사업은 '주민참여에 의한 가꾸기'를 모토로 내세우며 시민단체와의 협력 속에서 진행 하도록 하고 있고, 2014년까지 공원 사각지대에 175m² 규모로 28개소를 조성하겠다는 '한뼘동네공원' 사업도 '주민주도형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좀 찬찬히 살펴보면 주민참여라는 접두어가 사용되는 맥락의 결은 조금씩 다르다.

- 거버넌스 및 협력적 계획 차원에서의 주민참여
- 디자인과정에서의 주민참여
- 주민과 함께(주민참여를 통한) 작품 만들기

- 주민들과 기념수 심기
- 공원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

기본적으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주민참여와 주민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자원봉사나 기부(또는 재능 기부)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의 '디자인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주민들과 기념수 심기'의 주민참여는 다른 이야기이다. 하나 더 간단히 살펴보면 디자인 관련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도 설문조사 등에서 조사한 의견을 참고할 것인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설계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것인지, 현상설계 당선작 선정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킬 것인지, 조금씩 다 다르다.

## 주민참여의 다른 기원

이렇게 다른 결을 갖는 주민참여는 기원도 조금씩 다르다. 협력적 계획과 거버넌스 이론은 계획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발전되어온 계획이론의 거듭된 자기 성찰과 갱신의 결과이다. 1960년대, 우리의 도구적 이성과 과학적 절차에 기댄 합리적 종합계획이론의 실패와 이에 따른 회의, 엘리트와 전문가들 자체만으로는 커뮤니티에 최선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자각,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 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자기반성. 전문가 영역에서의 이러한 내부적 성찰은 빈곤이나 인종갈등 같은 사회 문제에서 비롯된 시민운동과 만나 새로운 계획의 모습을 기획하도록 했다. 그 결과로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이 등장했

다. 옹호적 계획은 진정한 다원주의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Davidoff, 1969).

이후 '옹호'가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한계 인식으로 계획가와 일반시민 사이의 대화와 사회적 학습을 강조하는 교환거래계획(Transactive Planning) 이론이 1970년대 등장했고, 이후로 1980년대의 좌파계획(Marxist Planning) 이론, 급진계획(Radical Planning) 이론, 1990년대의 포스트모던 계획(Postmodern Planning) 이론을 거쳐 소통적 계획, 협력적 계획으로 발전했다. 협력적 계획의 대표적 이론가인 Healey(2006)는 계획을 집단적 성찰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방되고 투명한 과정, 상호 관계에 대한 인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이론은 '장소 거버넌스(Place Governance)'로 구체화되는데, '거시적 계획'에서 '장소 중심적 계획'으로, '(추상적) 정책'에서 '(구체적 자리에서의) 행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계획이 장소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사는 사람 스스로가 일상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Healey, 2010).

디자인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는 커뮤니티 디자인 운동에 그 뿌리를 둔다. 커뮤니티디자인은 앞서 언급한 옹호적 계획 이론의 영향을 받은 디자이너들이 1960년대 후반에 시작한 운동이었다. 이들은 약자를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전문가들만의 작업이라 여겨졌던 디자인 과정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키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나름의 비장함이 있었다. "보기에 좋은 집이나 공원이 실업과 가난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2012년 성동구 동네숲 조성 과정 중.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벽에 설치할 타일 만들기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가릴 뿐이다. 커뮤니티가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민들을 제대로 ‘참여’ 시키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나름의 원칙과 방식이 필요하다보니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의사소통 과정 중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누구를 참여시켜야 하는지, 디자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리더십, 자기 존중, 자신감, 임파워먼트 같은 사회적 가치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세분화되어 진행되어오고 있다.

주민참여를 통한 작품 만들기는 새로운 장르로서의 공공미술(Public art)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관객, 관계, 소통 그리고 정치적 의도 같은 개념들 위에 세워진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의 시작 뒤에는 “미술을 위한 관객의 구성은 지금까지 상세히 검토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관객은 대체로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백인 중산층으로 가정되어왔다. 미술가들은 자신들 끼리를 위해, 그리고 선택된 몇몇의 비평가, 잠재적인 구매자를 위해 작업했다”(Lacy, 2010: 48)는 냉정한 자각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미술작업의 급진적인 유산과 미술가의 윤리적 의도”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기도하다(Lacy, 2010: 48).

이렇게 기원은 다르지만 위의 항목들이 궁극적으로 닿아

있는 곳에는 관료화와 폐쇄적 전문가 문화에 대한 한계인식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전문가의 작업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일상이 갖는 역동성 등이 있다. 베버가 고찰하였듯이 근대사회로의 이행 과정은 ‘합리화’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합리화와 문화적 합리화. 사회적 합리화의 결과로 제도와 법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적 합리화로 그냥 숨쉴 좋은 사람이 하던 일이 전문 영역으로 발전되었고 전문가가 탄생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합리화의 과정은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이지만 그늘진 부분도 갖고 있다. 추상화된 행정 시스템은 우리의 일상의 구체성을 담기 어렵고, 우리의 조밀한 삶은 전문가 영역의 구분에 따라 쪼개져 다루어지고 있다. 거기에서 관료화 같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지구화는 이러한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 개연성이 높다. 많은 정치적 결정들이 초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국적 회사는 직접 우리의 일상적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 주민참여, 접두어를 빼는 작업부터

이렇게 다양한 결의 주민참여는 그 기원도 다양하며 다른 역사적 과정을 갖으나 다이나믹 코리아에서는 압축적으로 진화되었고, 시간의 켜 없이 동시대적으로 실천되고 있

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으나 빠른 흡수와 실천이 드리울 그림자 또한 어쩔 수 없이 우려된다. 이리다 금방 지치고 지루해하지 않을까, 혹은 ‘별 거 없잖아’라고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은 채 공허한 구호라고, 레토릭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건 아닐까, 한 때의 유행으로만 가벼이 다루어지진 않을까 하는 염려다. 그런데 Till(2010: Foreword) 같은 이의 진단 ‘주민참여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규범이 되어가고 있다’을 참고해 볼 때, 주민을 중심에 두는 일은 어쩌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싶다.

2006년 1년 동안 영국에서 박사 후 과정 연구원으로 공원조성과 관리에 있어서는 주민참여를 연구하면서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항상 첫 번째로 던지 질문은 “왜 주민참여를 하는가?”였다. 하지만 그들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추후 짐작한 바는 그들에게 참여는 이유를 붙여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 당연한 것이지 않았나이다. 물론 주민참여에 회의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2010년 참여했던 영국 CABE의 여름 디자인 학교의 마지막 날, CABE의 수장격인 Richard Simmons의 강의 주제는 주민참여였다. 그런데 여기에 반발하는 건축가가 있었다. 행정이 자신들의 책임을 주민에게 떠맡기려고만 하지 말고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또 영국에서 발행된 공원, 녹지 관련 정책서(DTLR, 2002)는 시민들은 세금을 내는데, 왜 그리 자원봉사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의사결정에의 주민참여와 주민들의 자원 제공 모두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런데 리더십을 강조한 건축가나 정책서가 주민참여 자체를 부정하진 아니었다. 그들이 지적한 것은 ‘주민에게만’과 ‘왜 그리’였다. 그들의 주민참여에 대한 회의의 화살은 ‘해?안해?’가 아니라 “어떻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수가 되어가는 현재, 현명하게 대응하고 상황을 이끌기 위해선 주민참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주민참여’라는 접두어를 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주민참여의 결은 다양하고 그 기원도 다르다. 그래서 ‘주민참여’라고 뭉뚱그려 묶어버릴 것이 아니라 찬찬히 그 결을 섬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막연히 주민참여하자고, 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이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하거나 한계를 앞서 짐작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 간단하게 디자인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면 주민들에게 펜을 들려주고 직접 그리게 해야 주민참여를 통한 디자인일 텐데, 주민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학습하고 훈련해 온 전문가들의 안목과 손길이 갖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는 오해다. 그리고 주민을 의사결정의 중심에 둔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수용할 건 수용해야지만 반박할 건 반박해도 된다. 상호 이해의 도달, 그리고 협력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한다면 접근은 보다 쉬워진다.

## 그리고 교육

1960년대 운동으로 일어났던 커뮤니티 디자인운동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인 1980년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조경학과 교수 Francis(1983)는 커뮤니티 디자인의 미래를 위한 제안으로 '이제 교육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지금 여기'에서도 유효한 제안이다. 실천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주민참여의 다양한 결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방식에 대한 교육, 보다 넓게는 조경가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조경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다.

2012년 봄학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과에서 조

경진 교수님과 커뮤니티 계획 과 설계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처음 학생들은 커뮤니티라는 주제 앞에서 공동체 회복,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같은 큰 단어들을 갖고 왔다. 그들의 포부는 믿음직했지만 노파심도 생겼다. 공간에 대한 계획도 우리의 의도대로 구현되긴 어렵지만 관계에 대한 것은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에 밀착해 주민들에 대해 알아가면서 학생들은 조금씩 어깨에 힘을 빼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실천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해방촌의 정체성을 연구해보겠다는 학생들은 마을만들기의 시작점으로 해방촌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신문을 만들게 되었고 삼각지를 대상으로 대안적 도시 개발 방안을 제안하겠다는 친구들은 삼각지가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착실히 자료로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숙명여대와 청파동의 빈집을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학생들은 주민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현장에 근거한 한계성과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태원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막연한 거리감에 외국인들의 뒤통수만 사진에 담다가 이제는 친구가 되어 파티에 초대까지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태원이라는 공간의 문화적 생태계를 속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변화에서처럼 주민참여의 시작은 우리가 하는 일이 커뮤니티에,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

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부터이지 않을까 싶다. 여기에는 주민참여를 정치적으로, 장식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그 진의와 가치를 고민하면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깔려 있다.

## 인용문헌

- Davidoff, Paul(1969) Advocacy and Pluralism in Planning. American Institute of Planning Journal 31 : 305-322.
- DTLR(2002) Improving Urban Parks, Play Areas and Open Spaces.
- Francis, Mark(1983) Community Design. Journal of Architecture Education Fall: 14-19.
- Healey, Patsy(2006) Collaborative Planning Second: Shaping Places in Fragmented Societies. London: palgrave macmillan.
- Healey, Patsy(2010) Making Better Places. London: palgrave macmillan.
- Lacy, Susan(2010) Introduction. in Susan Lacy, eds.,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pp. 23-63. 이영옥·김인규(역),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지형그리기. 서울: 문화과학사.
- Till, Jeremy(2010) Foreword in Paul Jenkins and Leslie Forstyth eds., Architecture, Participation and Society. London: ROUTLEDGE.



1960년대 Ralph Erskine이라는 건축가는 영국 뉴캐슬의 바이커라는 주거단지(Byker Wall Housing Development, Newcastle Upon Tyne)를 디자인하면서 장례용 건물에 상점을 설치하고 꽃과 나무를 팔면서 주민들과 소통했다.



# ‘조경과 시민참여’, 가능성의 모색

권진욱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kwnji@yu.ac.kr

## 시민참여와 공공디자인의 관점

시민참여에 대한 근원적 의미를 되짚어 본다면, 1990년대 개인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중시한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론의 대두를 상기할 수 있다. 여기의 목적은 짐작하는 것처럼 정부의 규모와 일을 줄이고 자율시장 경제 정책에 따라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의도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이를 계기로 발전된 시민참여의 형태는 더욱 자율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며 진화하였는데 넓은 의미로 본다면 시민의 자조조직이나 각종 민간비영리기구(NPO) 그리고 시민의 연대로 만들어진 지방 정당의 탄생 등이 그것이다.

이와 연결 지어 다른 맥락을 보자.

환경과 장소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과 감성은 시대와 병행

하여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동시대 관점에 멈추어 바라보면 아마도 산업화이후 근대를 거치며 정리되어진 인간 환경의 전체적인 모습이 개별적이며 주체적이기 보다 획일적이며 동질화된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서 우리 스스로 환멸을 느끼게 된 것이 아닐까. 물론 이 또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며 성장되고 연대화 된 권력을 지닌 시민의식이 성장하였다. 환경과 장소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즉 필요로 하는 살기 좋은 환경을 요구하고, 다세포 사회 속에 정체성을 가진 커뮤니티에 적합한 곳 디자인을 향하여 외치는 것인데, 짐작하건데 이러한 현상은 미래지향적으로 점차 국가를 중심으로 결속된 단일화를 추구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창조지수가 높은 환경과 도시를 요구하는 흐름으로 가속화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디자인을 바라보자. 현대에 접어들어 공공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적용이 자칫 화장술적인 시각적 표현 바꾸기에 급급한 나머지 공공미술과 혼재되어 회자되기는 하나, 엄연히 공공디자인은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환경적 대응에 의한 과정과 결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공공(公共)’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참여자의 무제한성을 의미하기 보다는 공간성격 및 활용에 대한 성격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디자인’에 의미도 행위와 그 결과로 해석해보면 어떨까. 그 이후 조경의 관점에서 ‘시민참여가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시민참여를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를 되짚어 본다면, 참여 유형과 성격에 따른 전문가와 시민간의 적절한 관계설정이 유익할 듯하다.





## 참여 프로그램의 현상과 예측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조경 혹은 정원 에 대한 현상을 바라보자. 물론 '참여' 라는 것은 그 의 미적 범위 자체만으로도 운용의 폭이 방대하며, 그 기준 또한 객관적인 언명들 속에 주관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조경의 결과물로 소개되어진 몇몇의 사례를 짚어 본다면, 우선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참여를 유도한 커뮤니티 디자인 유형의 '마을 만들기'와 '우리 동네 꾸미기'를 들 수 있으며, 정원축제의 일환으로 기획되어진 '시민 정원'이나 '참여의 정원' 등이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전자가 실행과 실현의 구체적 사례라 한다면, 그 외에 시민참여를 통한 일련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지자체별로 전개되는 아이디어 공모전, 문화행사와 연계한 참여프로그램 또는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프로그램 들을 언급할 수 있는데, 후자의 내용들은 전문가와 비전문가 혹은 정책 실행자와 수혜자 상호간의 견해차를 좁히거나 수렴을 위한 일련의 의사소통 수단의 역할을 가지거나, 참여를 통한 주체의식 부여에 본원적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조경분야에 관한 시민참여의 폭은 관대하지 못하다. 이는 조경의 결과물이 요구하는 경제적인 측면과 규모의 관계가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나아가 요구되어지는 기술적 전문성에 제약의 조건이 가해지는 탓일 것이다. 급기야는 간단한 주민 의견수렴이나 공청회가 과장되어 시민참여에 대한 걸치레로 등장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 그렇다면 '참여를 위한 선택의 폭'을 넓혀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조경에 관한 시민참여의 범위를 제안하기에 앞서 개별 프로젝트 내용에 적합한 유니버설 플랜(universal plan)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민참여의 영역을 구분지어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실행적 참여와 제안적 참여로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향으로서는 공공공간의 사후관리적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치 '생산적 소비자'에 해당하는 '프로슈머(prosumer)'와 유사한 진화된 역할로서의 시민참여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 전문가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2009년에 접어들어 시민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커뮤니티 디자인 사례를 발견하였다. 프로젝트의 제목은 '수원 못골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이며 그 내용은 '우리는 못골시장 라디오 스타'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전국의 서점에 시판되었다.

물론 이 내용의 중심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 과업의 목적과 결과를 본다면 조정의 주민참여와 사뭇 다를 수 있으나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기초한 공공디자인의 진행과정에는 많은 유사성과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히스토리북에 소개된 오형은 대표(프로젝트 총괄기획, 지역활성화센터)의 말을 인용해본다.

“첫 고민은 ‘시장의 문화란 무엇인가’ 였고... 그것은 바로 상인과 소비자 간 소통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이었다. (중략)

처음 만난 못골시장은 180m양안에 노점과 상점들이 줄지어 서있는 전형적인 생활시장이었고 주로 농산물과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구매가 가능한 식품들이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단지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장의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일이었다.”

위와 같은 목적하에 프로젝트는 지역 활성화와 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공간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는데 ‘현대화사업의 디자인 가이드’와 ‘못골시장 점포별 가이드’를 중심으로 ‘아케이드 디자인’, ‘간판디자인’ 그리고 공공공간 디자인에 초점을 두었다. 프로젝트의 진행은 전문가 집단에 의한 환경 분석과 시장구조분석과 통하여 기본지침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후 설문을 통하여 공간 요구에 대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수집한 것인데 이러한 과정의 바탕에는 숨어있는 시장 고유의 문화를 찾기 위하여 선행된 스토리 텔링 작업이 특이하다 하겠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전문가(프로젝트 매니저)에 의한 로드맵으로 일관 관리되며 시민참여의 부분과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적인 것은 행정담당자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간의 관계설정이라 하겠다. 표면적이고 실패한 커뮤니티 디자인의 경우 3개의 집단은 각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전문가의 이상적 그림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실과의 갈등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하며, 주민의 이기적 발상에 의하여 충돌하는 행정담당자와의 의견이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전문가가 주민의 일반적인 견해에 솔깃해서 휩쓸리거나 자기만의 독단으로 방향을 유도해 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의 공공영역에서 주민참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전문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안목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 주민참여를 위한 조직체계를 정리해본다면 대략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민참여의 성격에는 반드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행정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그 외 총괄계획가, 지역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총괄계획가가 행정담당자와 지역전문가 사이의 소통을 담당하며 전문적 마스터 플랜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면, 지역전문가는 주민 참여의 정도를 조율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괄계획가가 간파하기 쉬운 지역성을 보완하며 계획의 수위를 조절해 줄 것이다.

조정이라는 것은 그 태생 자체만으로도 다각적 측면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연유로 오늘날 시민참여에 대한 정책과 그 형태는 소극적이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환경과 공간을 다룬다는 넓은 시각을 가지며, 그 결과에 대하여 조정만을 집착하지 않고, 삶이 어우러진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조금 더 유연한 시민참여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 제4회 컬러풀대구 도시 디자인공모전

## The 4th Colorful Daegu Urban Design Competition

### 제4회 컬러풀대구 도시 디자인 공모전

**■ 일반부 공모전**

- 공모주제 :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장소, 장소와 환경, 환경과 인간이 함께하는 도시 디자인
- 공모대상 : POINT DESIGN, LINE DESIGN, AREA DESIGN
- 출품형태 : A1 (최소 50x70cm) ~ A4 (최소 20x30cm) 2~5매 (A4용지 5매를 초과하는 경우, 5매를 초과하는 분량)
- 공모접수 : 2012년 5월 25일(월) ~ 5월 25일(금) 18:00까지 (후편 또는 방문접수)

**■ 학생부 경시대회**

- 공모주제 :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의 공간 (※ 공모대상은 대학 1학년 한정 제시)
- 참가자격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참가신청접수 : 2012년 5월 14일(월) ~ 5월 25일(금) 18:00까지
- 일 시 : 2012년 6월 6일(수, 공휴일) 13:00~17:00
- 장 소 : 대구스튜디오 주경기장 또는 관동역 (※ 당일 상황에 따라 선정)

**■ 시상내용**

- 시 상 액 : 2012년 6월 12일(월) 14:00
- 일 반 부 : 최우수 (300만원, 대구광역시청 명예 상장) 1등 외 18등
- 학 생 부 : 최우수 (문화상품권 100만원, 대구광역시청 명예 상장) 1등 외 14등

**■ 전시일정 및 내용**

- 일 반 부 : 2012년 6월 5일(화) ~ 6월 12일(월) (수정제 18일 전시)
- 학 생 부 : 2012년 6월 5일(화) ~ 6월 12일(월) (수정제 18일 전시)
- 전시 및 시상식은 '2012년 디자인 대구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대구 스튜디오에서 함께 진행함'

※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를 참조



# 게릴라 가드닝을 아시나요?

박승진 디자인스튜디오 loci 소장 designloci@hotmail.com

## 게릴라가드닝이란?

게릴라가드닝(guerrilla gardening)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용어다. 아직까지 적당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출판되어 언론에 소개된 리처드 레이놀즈(Richard Reynolds)의 저서 "게릴라가드닝(On Guerrilla Gardening)"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책에서 저자는 게릴라가드닝을 '소유의 경계를 따지지 말고 꽃과 나무를 심는 행위'로 소개하고 있다. 꽃과 나무를 심는 행위를 원에 혹은 조경의 일반적인 활동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의 경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유의 경계'라는 것은 재산권 혹은 관리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인데, 이 경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대상지가 개인 소유의 땅인지 혹은 공원이나 가로녹지처럼 공공의 땅인지를 따지지 않고 허가나 사전 협의 없이, 방치된 (또는 남겨진) 공간을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녹화하고 가꾸는 작업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작업은 태생적으로 '경계를 무시'하고 '허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엄청난 난관을 만나게 된다. 대

부분 행정기관의 철거명령을 받거나 어떤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소송대상이 되기도 한다. 게릴라가드닝이 태동한 구미권에서조차도 이러한 '열정'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행위들이 실제로 심각한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비록 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하지만, 개인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공공의 도시환경을 의욕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선의에서 출발하였고, 그 결과가 대부분 상당히 만족스러우며, 개인이나 공공 누구에게나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는 토지소유주 또는 공공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얻게 됨으로써 합법적인 동네정원(community garden)으로 활성화 되는 경우도 많다.

## 게릴라 가드닝의 역사

그러면 이 게릴라가드닝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그 역사는 17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49년경 불공정한 토지법 개혁을 주장하던 급진주의자 제라드 윈스탠리(Gerrard Winstanley)라는 사람이 굶주린 이웃들에게 경작

할 땅을 주기위해, 버려진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여기에 홍당무, 콩, 보리와 같은 작물을 심은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목적이 '저항'에 있었고 '게릴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공감하는 순수한 의미의 '게릴라가드닝'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1973년 뉴욕의 화가 리즈 크리스티(Liz Christy)가 '그린게릴라(green guerrilla)'라는 이름으로 뉴욕 시내에 만든 커뮤니티 가든 'Liz Christy Garden'을 그 최초로 보고 있다(그림2, 그림3). 처음에는 불법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15개월이 지난 후 합법화 되었고, 2005년 현재 게릴라 가드너 30명이 정기적으로 정원을 돌보면서 센트럴파크와 같은 수준으로 정부의 보호를 받는 정원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게릴라가드닝'의 저자 리처드 레이놀즈는 2004년에 우연히 이 작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는 약 7만명이 그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그림1). 게릴라가드너들은 매년 5월1일을 '세계 게릴라가드닝의 날'로 정하고 이 운동을 상징하는 자이언트 해바라기를 심는 행사를 세계 곳곳에서 펼쳐나가고 있다.



그림1. 게릴라가드닝의 저자 리처드 레이놀즈(Richard Reynolds)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www.guerrillagardening.org



그림2. 1973년에 최초로 게릴라가드닝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뉴욕의 Liz Christy Garden  
(http://farm5.static.flickr.com/4077/4874023096\_8211f88f89\_o.jpg)



그림3. Liz Christy Garden을 만든 '그린게릴라' 웹사이트





그림4. 게릴라가드너들의 활동 무대는 주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공공공간이 대부분이다.  
([http://guerrillagardening.files.wordpress.com/2009/05/img\\_12531.jpg](http://guerrillagardening.files.wordpress.com/2009/05/img_12531.jpg))



그림5. 관심과 애정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공공정원을 가꿀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http://www.helladelicious.com/wpcontent/uploads/2010/04/P1350853.jpg>)



그림6. 아무리 비좁은 틈새라도 게릴라가드너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  
([http://photos1.meetupstatic.com/photos/event/9/6/c/2/highres\\_3158594.jpeg](http://photos1.meetupstatic.com/photos/event/9/6/c/2/highres_3158594.jpeg))

## 우리나라에서의 게릴라가드닝

게릴라가드닝은 순수하게 개인들의 비용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시민참여에 의한 조경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용어의 생소함만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타인 소유의 유휴 토지나 그린벨트 언저리에서 행해지는 소규모 경작행위는 공공성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게릴라가드닝으로 분류하기 힘들다. 오히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도시텃밭이나 자투리 공지 녹화, 한 평 공원 같은 사업들이 그 효과면에서 게릴라가드닝의 취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합법적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게릴라가드닝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가드너들 상당수가 원예전문가 혹은 그에 비견되는 수준으로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때때로 조경전문가들이 시민으로 돌아가서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웹사이트나 서적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이 분야에 초보자인 '보통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2010년 11월에는 서울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담론을 다루는 포럼인 퍼블릭비스타에서 보다 실천적이고 주민참여와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공공문화 사업을 위해 한국에서 최초로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게릴라가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그림9). 디자인, 건축,

미디어, 공예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디자이너들과 미술대학생들 148명이 그해 여름 조직위원회에서 배포한 폐강통에 손수 다양한 식물과 채소를 길러 서울 도심의 가로변에 깜짝 설치한 것이다.

국내에 번역서가 출판되고, 아직 초보단계이기는 하지만 포털사이트 내에 게릴라가드닝 카페가 개설되는 상황에서, 조경인들이 이 운동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행정기관이 주관하고 전문 설계사와 전문 시공업체가 만든 '합법적인 공원'이 때때로 게릴라가드너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부실하게 관리되는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경작업은 사후 식물관리가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게 작동해야만하는 분야다.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 게릴라가드너들을 위한 활동 가이드

본문에서 소개한 리처드 레이놀즈(Richard Reynolds)의 책 "게릴라가드닝(On Guerrilla Gardening)"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몇가지만 추려서 소개한다.

### 어떤 식물을 심을 것인가

색이 강렬한 식물, 의외성이 있는 식물, 향이 강한 식물, 가뭄에 강한 식물, 그늘에 강한 식물, 척박한 토양에 강한 식물, 알칼리성 토양에 잘 견디는 식물, 바람에 강한 식물, 염분에 강한 식물, 번식력이 강한 식물, 잡초를 몰아내는 식물 등

### 식물 조달 방법

- 게릴라 가드너 자신이나 동료의 정원
- 재고 정리하는 종묘상
- 직업 정원사 (행정기관에 소속된 경우도 포함)
- 우리가 먹는 식품의 씨앗 (토마토, 사과 등)
- 묘목상으로 부터의 신규 구입
- 다른 게릴라 가드너

### 게릴라가드너들의 복장

- 전문적인 정원관리인으로 보이게 하는 작업복 (합법적인 작업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 또는 평범한 일반인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평상복 (누가 작업을 하는지 모르게 하는 방법)
- 도로변에서의 작업이라면 안전을 위해 형광색, 야광장치가 달린 복장

### 물공급

- 공공의 수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직접 물통을 지고 날라야 한다.
- 이 경우 다양한 크기의 생수통이 좋다. (석유통은 편리하지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그 공간의 이용주체가기 때문에 언제나 관리가 부실한 공간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안할 포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유형의 의욕적인 게릴라가드너들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 게릴라가드닝이 도시공간에서 항상 최선의 대안이 되

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지역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여러 논의를 가능케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하는 강력한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조경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술적인 부분이나 의견 조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극적인 색채의 스프레이로 도시 이곳저곳에 낙서같은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graffiti) 작업이 이제는 분명히 예술의 한 장르가 되었듯이, 게릴라가드닝 역시 방치된 도시의 빈 공간이 시민들의 열정으로 다시 태어나서 잘 가꾸어지는 '동네정원'으로 성장할 강력한 씨앗을 품고 있다.



그림7. 때때로 거리의 작은 시설물조차 정원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  
(<http://tillscottage.com/wp-content/uploads/2011/03/guerillagardening3.jpg>)



그림8. 땅에 떨어져 무차별적으로 꽃씨를 퍼트릴 수 있는 '씨앗폭탄'  
([http://tisheangelista.com/wordpress/wp-content/uploads/2010/05/te\\_bombs-away.jpg](http://tisheangelista.com/wordpress/wp-content/uploads/2010/05/te_bombs-away.jpg))



그림9. 공공디자인포럼 '퍼블릭비스타'에서 기획한 2010년 '게릴라가드 코리아' 홍보 포스터

## 철새협동鳥합



### 철원 철새마을 커뮤니티 디자인

김광수, 김아연, 김지석, 오형은, 이장섭, 이재영, 조정진, 허대영 등 13인 공저

이 책은 건축가, 조경가, 생태학자, 환경교육 전문가, 커뮤니티 계획가, 지역브랜딩 디자이너가 DMZ 부근의 접경지역인 철원군 양지리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2년여의 시간 동안 협력하여 작업한 커뮤니티 디자인의 결과물이다. 전국 각 지역의 수많은 공공건축물들이 체계적인 준비과정 없이 단기간에 지어진 후 정작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철새협동鳥합>이 보여주하고자 하는 느리지만 탄탄한 계획과정은 새로운 공공건축 계획과 마을만들기 프로세스의 좋은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232면 / 사륙배판 변형 / 무선제본 / 올컬러 / 15,000원

##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다



### 주민참여로 가꾸어나가는 삶의 공간

커뮤니티 디자인센터 저음

이 책은 10년 전 건축, 도시, 조경을 전공한 이들이 모여 만든 커뮤니티 디자인센터에서 추진한 다양한 한평공원 만들기과 놀이터 사례를 통해, '커뮤니티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마을만들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10여년에 걸친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나라 노하우와 시행착오가, 우리 시대에, 우리 마을에 필요한 커뮤니티 디자인이 어떠한지 알려주는 지침서로 알려주고 있다.

232면 / 신국판 / 무선제본 / 올컬러 / 15,000원

##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는 2012년 8월 15일 발행될 조경정보 제16호의 주제는 '역사·문화'입니다. 관련 정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사)한국조경학회나 라펜트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www.lafent.com](http://www.lafent.com)

기간 2012년 8월 15일까지  
보내실 곳 kila96@chol.com  
lafent@lafent.com  
문의 031-955-6042~4

발행인 | 양홍모((사)한국조경학회장)

편집위원 | 성종상(서울대)

책임편집위원 | 권진욱(영남대), 박승진(디자인스튜디오 loci)

편집위원 | 김아연(서울시립대)

윤상준(재아름지기)

간사 | 유은자 백정희

2012년 7월 10일 발행 | 발행처

(사)한국조경학회





## (사)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 \_ (02)565-2055 | FAX \_ (02)565-2056 | e-mail\_kila96@chol.com



### (주)가원조경설계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1-18 두아빌딩  
Tel, 02-501-2555  
Fax, 02-3452-5426  
E-mail, gaone@chol.com

